

‘국립공원 100경’ 무등의 아름다움을 보라



덕산너널(봄)



규봉암(여름)



서석대(가을)



입석대(겨울)

국립공원 무등산의 대표경관인 서석대, 입석대, 광석대와 규봉암, 덕산너널 등 4곳이 국립공원 100경에 추가 선정됐다. 무등산의 상징인 서석대와 입석대는 산 정상부근에 형성된 주상절리(돌기둥)이다. 서석대는 가을이 더욱 아름답다. 저녁노을이 물들 때 햇빛이 반사돼 수정처럼 반짝거리는 서석대는 환홀하다. 광석대는 마치 긴 탑과 같은 형상으로, 노송에 에워싸인 규봉암의 배경이기도 하다. 덕산너널은 무등산의 대표적인 둘머더기다.

〈사진 환경부 제공〉

환경분쟁 지난해 210건...1위 소음·진동

조정위, 사례집 온라인 공개
해결까지 평균 5.6개월 걸려
통풍 방해·빛 공해 등 다양

우리 국민이 겪고 있는 환경피해의 상당수는 소음·진동을 둘러싼 환경분쟁이라는 통계가 나왔다.

지난 1991년 설립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한 3495건의 환경분쟁 가운데 85%가 소음진동 관련 환경분쟁이며, 다음으로는 대기오염 6%, 일조 4%, 수질오염 3%, 기타(토양오염, 해양오염, 통풍방해) 2% 순이었다.

조정위는 최근 환경분쟁을 겪고 있는 국민이 참고 할 수 있도록 지난 25년간 처리한 분쟁사례 가운데 대표적인 사례 25개와 각종 통계를 담은 ‘환경분쟁 조정 25년사’를 최근 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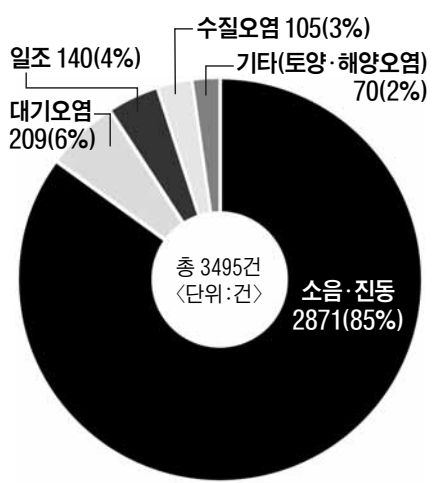
◇환경분쟁 1위 소음·진동, 처리는 6개월=23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가 최근 펴낸 ‘환경분쟁 조정 25년사’에 따르면 지난 25년간 위원회가 처리한 환경분쟁사례는 총 3495건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에서는 각각 33건, 199건이 접수됐다. 연도별로 비교하면 지난 2000년 60건에 그쳤던 환경분쟁 처리 건수는 지난해 210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당시자가 조정위에 피해 사례를 접수한 이후 배상결정이나 기각 등으로 처리되기까지 걸리는 평균기간은 5.6개월로 파악됐다.

조정을 거쳐 배상이 이뤄진 건수는 1506건이다. 배상액 규모로는 1000만원 미만이 680건(45%), 1000만~5000만원 미만이 545건(36%), 5000만~1억원 미만이

□환경분쟁 유형과 배상액 규모

■환경분쟁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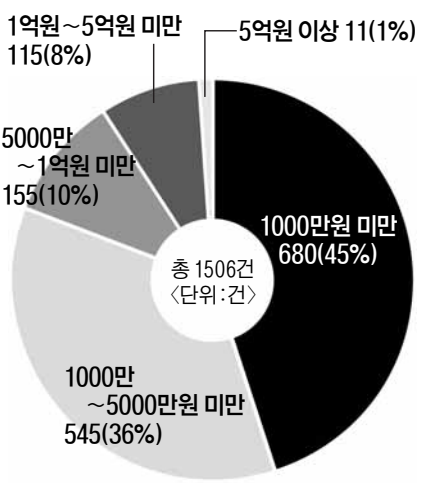


155건(10%), 1억원~5억원 미만이 115건(8%), 5억원 이상이 11건(1%)이다.

피해(분쟁) 원인은 1990년대 대기, 수질, 토양, 해양, 소음·진동, 악취 등을 시작으로 1997년 자연 생태계 파괴, 2002년 중간소음, 2006년 일조·조망·통풍방해, 2012년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등으로 범위가 확대해왔다.

◇최초, 최대, 최다 환경분쟁 사례=환경분쟁의 시초가 된 최초 사례는 1991년 대구 낙동강 폐물사태다. 두산전자(주)의 폐물유출사고로 대구시민들이 폐물에 오염된 수돗물을 마셔 정신적, 신체적, 재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사례다. 재산 피해의 경우 수돗물 오염으로 인한 물탱크 청소비용, 난초 고사 피해, 음식물 폐기 및 영업 피해, 인건비 손실 등 다양한 피해 내용이 청구돼 이 중 상당수가 피해로 인정 받고 보상됐다고 조정위는 설명했다.

■배상액 규모



최대 배상사례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 신항만 준설토 투기장에 해충이 들끓어 주민 1042명이 피해를 주장한 사례다. 국내에서 최초로 발생한 해충피해 사례로 전문적인 인과관계 규명, 피해액 산정이 필요함에 따라 동의대학교에서 연구·조사했다. 그 결과, 투기장 준설토 속에 낙동강 하류의 영양물질이 다량 함유돼 해조류와 플랑크톤이 발생하는 특수한 환경이 조성돼 해충이 대량 발생한 것이 확인됐다. 조정위는 해충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개연성을 인정해 2007년 7월 13억 385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최다 신청인 사례는 경기도 군포시 주민 5546명이 수도권 외곽순환도로 공사에 따른 소음·진동, 먼지로 피해를 입은 사건이다. 분쟁지역은 공사장으로부터 85~505m 떨어졌고 아파트 일부 세대의 유리창에는 돌가루가 쌓여 있었고 소음도는 최고

79dB(A)로 건설공사장 규제기준인 65dB(A) 이상으로 나타났다. 진동도는 최고 58dB(V)로 건설공사장 규제기준인 65dB(V) 이하로 나타났지만 2년간 지속된 발파진동이 건물균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정위는 판단했다. 조정위는 1998년 5월 4억906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시선 끄는 분쟁조정 사례=풍파해로 인한 사례는 2007년 3월 도로성도 공사장 통풍방해로 인한 사고 피해 사례가 있다. 충남 공주시에서 과수원을 운영하는 농장주가 도로 흙 쌓기 작업에 따른 통풍방해로 과수원에 냉해 및 고온이 발생(심한 일교차)해 사과피해를 입었다며,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례다. 전문가 조사 결과, 도로 흙 쌓기 작업구간과 가까운 과수원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최저기온이 더 낮게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돼 4196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기준치를 넘지 않은 소음에도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배상 사례도 있다. 울산시 울주군에서 예견·연견 훈련학교를 운영하는 신청인이 인근 전철 터널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해 훈련견이 죽거나 다수의 어미개가 유산 또는 사산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였다며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시공사를 상대로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례다.

시공사는 소음도가 최고 62dB(A)로 가족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인 70dB(A) 이내로 조사됐지만, 조정위는 개의 경우 사람보다 소음에 16배 정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150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사례집은 위원회 누리집(ecc.me.go.kr)과 환경부 자료실(www.me.go.kr)에 공개된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 개소...업무 시작

국립공원관리공단(박보한 이사장)은 지난 22일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진광·사진)가 개소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태백산은 도립공원 지정 27년 만에 구역을 넓혀 올해 4월 우리나라 제22호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 국립공원 구역은 강원 태백시 51.2km, 강원 영월군 0.1km, 강원 정선군 0.9km, 경북 봉화군 17.9km 등 총 70.1km로 기존 도립공원 면적(17.4km)의 4배에 이른다.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태백시 소도동(당골) 입구에 사무소를 마련하고,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장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무사고, 자원보호, 탐방객 안전’등을 기원하는 고사를 지내는 것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자연자원 조사를 통해 태백산의 전반적인 자원현황을 파악하



고 탐방로 훼손지 정비, 일본잎갈나무 수종갱신 사업 등 생태복원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태백산의 풍부한 생태·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생태관광과 탐방문화 개선 시범공원을 추진하고, 유관기관과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지역협력위원회’ 구성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원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구연동화로 유아 아토피 예방해요”

광주 서구, 어린이집 순회교실

광주시 서구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아토피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유아 눈높이 교육 구연동화 순회교실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순회교실 운영은 매년 아토피 환자가 늘어나면서 아토피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피부질환으로서 예방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서구는 아토피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예방, 치료, 관리방법을 전달한다. 이번 교육은 5세

에서 7세 유아를 대상으로 서구 내 어린이집 20개소를 찾아가 진행한다.

동화구연 전문가가 애니메이션, 인형 등을 활용하여 아이들이 재미있고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눈높이교육으로 구성했다.

어린이들은 건강동화 시리즈 중 ‘아토피 마왕을 잡아라’는 동화책을 이용해 아토피질환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다. 문의 서구보건소 건강증진팀 (062-350-4131).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h3>곡성, 농가 전원 주택</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곡성군 입면 송전리 233-6번지 ■ 대지 72평, 건물 28평(실평), 텃밭 ■ 1층, 2012년 준공, 시멘트 벽돌조 ■ 광주에서 25분, 금호타이어에서 1분 ■ 시세 8천만원, 매매 5200만원 	<h3>수기동, 제일오피스텔</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구 수기동 23-2번지 ■ 20층중 20층, 76평, 즉시 입주가능 ■ 사무실 전용, 분할매매 가능 ■ 감정 / 시세 3억, 전방최고 ■ 매매 - 2억 2천만원 (조정가) 	<h3>금호동, 근린상가</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구 금호동 243-6번지 ■ 서광병원 4거리 코너, 구 7080자리 ■ 7층 건물중 701호, 7층 전체 ■ 감정 / 시세 7억, 모든 업종 오픈가능 ■ 매매 - 6억 2천만원, 일식부 대폭할인 	<h3>남구, 송하동 임야</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구 송하동 산77번지 ■ 2026평, 도로에서 200m 지점 ■ 풍암동 대주 3차아파트 인근 ■ 시세 / 감정 8천만원, 장기투자 최적 ■ 매매 - 3200만원 	<h3>나주, 세지면 임야</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주시 세지면 내정리 산 12-4번지 ■ 89평, 2차선 간선도로에 접함 ■ 현재 밭으로 이용 중, 세지 북초 인근 ■ 시세 2천만원 ■ 매매 - 550만원
<h2>싸고 좋은 물건, 회사 사정상 급매합니다!</h2>				
<h3>회사직거래 / H.010-3605-5000</h3>				
<h3>장성, 전원주택지</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화면 남산리 1073-7번지 ■ 대지 128평, 계획관리지역, 코너 ■ 36세대 중 20세대 거주 중 ■ 시세 1억, 주변환경 깨끗 ■ 매매 - 7200만원 	<h3>나주, 근린주택</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산면 금곡리 877-2번지 ■ 1층, 대지 42평, 건물 43평 ■ 농협건너편, 2차 대로에 접함 ■ 시세 8천만원, 위치 좋음 ■ 매매 - 5200만원 	<h3>구례, 호텔급 모텔</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동면 관산리 732-1번지 ■ 대지 573평, 건물 719평, 4층 건물 ■ 지리산 온천지구 내, 객실 58개 ■ 시세 / 감정 15억, 리모델링 계획중 ■ 매매 - 8억 3천만원 	<h3>월산동, 광전빌라</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구 월산동 110-18번지 ■ 5층 중 5층, 20평, 베란다 있음 ■ 2013년도 신축, 전망 좋음 ■ 시세 1억 2천만원 ■ 매매 - 9700만원 	<h3>장성, 서삼면 농지</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삼면 장산리 691-1번지 ■ 333평, 코너, 교통최고 요지 ■ 생산관리지역, 축령산 5분 ■ 시세 8000만원, 모든업종 개발가능 ■ 매매 - 6600만원